

“안전·깔끔 김치” 해남이 책임집니다

군, 김치수출단지 조성 ‘속도’...농축산부에 국비 건의 전국 롯데슈퍼 320곳서 절임배추·양념 등 예약 판매

중국산 ‘알몸 김치’ 파문으로 김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절임배추 주산지인 해남군이 ‘안전·깔끔 김치’를 내세우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김치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김치수출단지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계 의견 수렴 및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한 데 이어 최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김치수출단지는 마산면 식품특화단지 2지구 내에 조성되며 오는 2024년까지 원재료 및 식품 저장·물류센터, 가공공장, 김치 성분 기능성 연구센터(실증, 분석), 창업·수출·R&D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해남군은 이를 통해 해남 김치를 지역특화 수출주도형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올해 초 김치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신규 국고 건의사업으로 선정하고,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광주시 세계김치 연구소를 잇따라 방문해 김치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 R&D센터 유치 등을 협의했다.

해남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전남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김치연구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식품산업연구소, ㈜대상, 화원농협 등 관계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김치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료 수급 안정화, 해남김치 품질 차별화, 제조공정 선진화, 김장문화 확산이라는 4대 전략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남군은 깔끔·안전한 해남김치 홍보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롯데슈퍼와 농산물 소비촉진 특별 행사를 연다.

특별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해남 대표 농산물인 절임배추, 찜고구마, 자색고구마, 찜배추, 무청시래기 등 총 7개 품목을 행사 상품으로 집



해남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전남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김치연구소, ㈜대상, 화원농협 등 관계기관과 ‘김치수출단지 조성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남군 제공>

중 판촉한다.

특히 최근 중국산 절임배추 비위생 논란으로 인해 가정에서 손쉽게 김치를 직접 담가 먹을 수 있도록 해남절임배추 10kg, 김치양념 3kg를 매월 1~2회 롯데슈퍼 전국 320개 점포에서 예약판매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전국 최고 품질인 해남배추의 소득 증대와 김치 가공분야 확대를 위해 김치 수출단지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배추를 넘어 우리나라 김치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27~29일 온라인 생중계



진도군은 오는 27~29일 열리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지난해 전면 취소됐지만, 올해는 온라인 축제로 바닷길이 열리는 현장을 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신비의 바닷길 현장 동영상 드론 촬영, 뽕할머니 제례, 진도북놀이 등 진도만이 간직한 전통 문화예술 공연 중계는 물론 온라인 실시간 댓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진도군이 직역하는 온라인 쇼핑몰 ‘진도아리랑 물’과 연계한 청정진도 농수특산물 홍보와 판매 행사도 펼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7일 고흥군 금산면 신양 선착장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촉구

완도군, 국토부에 연륙교 건설 건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국토교통부 주현중 도로국장이 국도 승격 건의 구간인 고흥군 금산면 신양 선착장을 방문하자 신우철 완도군수가 직접 나서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군수는 “현장에 오기까지 5개 군을 거쳐 3시간 만에 도착했는데, 연륙교 건설 시 30분이면 올 수 있다”면서 “교통망 개선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가 제2차 국가도로망 중

합 계획에 반영되면 목포~부산 구간 중 유일한 단절 구간(지방도 830호선 완도~고흥 도로)이 연결된다. 서남해안 교통망이 구축되고 연륙 사업(해상교량 5개소 10.2km, 접속도로 17.2km)이 활발히 이뤄져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군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지지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완도군은 완도~고흥 국도 승격을 위해 그동안 범군민 대책기구 구성, 국도 승격 촉구 공동 결의문 채택, 심포지엄 개최, 서명운동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사진은 무안국제공항 전경. <무안군 제공>

무안국제공항 연계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무안군, 관광산업·공항 활성화

국내 단체관광객 모객 인센티브는 10인 이상의 단체 또는 5팀 이상이 같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 1인당 5천원을 지급한다.

김산 무안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돕고 공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사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무안-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해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항 예정이다.

지원 공모 신청을 원하는 경우 무안군 홈페이지 공사·공고란에서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해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관광산업과 항공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무안국제공항 이용을 주요 조건으로 전세기(항공기) 운항 장려금은 왕복 1회당 국내선 300만원, 국제선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단체관광객 차량 지원금은 같은 항공기에 탑승한 10인 이상의 단체일 경우 왕복 1회당 20만원을 준다.

신안군 ‘1004 구급선’ 취항 섬지역 응급환자 신속 이송



신안군은 비금·도초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바다 위의 구급차인 ‘1004 구급선(AMBULANCE)’을 취항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1004 구급선’은 길이 15.5m, 폭 3.4m, 중량 7.31t으로 12명이 승선 가능하다. 최고속도 40노트(시속 70km)로 응급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암태 남강에서 비금·도초면까지 30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

1004 구급선은 기존 신안군 소속 행정선을 운영하는 배터라급 선장과 기관장 등 8명으로 운영되며, 야간에는 2명씩 4교대로 24시간 상시 출동 및 대기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의료·교통환경이 열악한 섬지역에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사수해 주민들의 생명보호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